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 
		배포일시	2019. 7. 2.(화) 총 6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• 과장 이경석, 사무관 복상규, 주무관 임성국 • ☎ (044) 201-3779, 3783	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옥을 찾아주세요

제9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...8월 5일부터 접수, 9월 중 선정·발표 [공모 분야] 준공·계획·사진 3개 부문서 총 상금 4천만 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「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」을 개최한다.

-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의 다양화·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옥 분야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.
- 그간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여 개최한 한옥공모전은 지난 9년간 청소년·대학생·일반인 등 폭넓은 연령대와 계층으로부터 총 4,309점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.

□ 이번 공모전도 예년과 같이 준공, 계획 및 사진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.

-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·설계자·시공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.
- 계획부문은 팀(4인 이내)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는데, 올해 주제는 ‘한옥,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’로서 응모자들은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역할을 하는 한옥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.

* 과거 종가가 마을 건축의 기준이었듯이, 도시마을 재생의 기준이 되고 장차 도시마을 건축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도시에 개성을 입히고 도시풍경을 독특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

-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부문(중·고등학생)으로 나누어 출품자가 정한 주제에 맞는 한옥 관련 사진을 접수받으며 청소년 부문은 휴대폰 촬영사진도 응모할 수 있어 관심있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작품 접수는 8월 5일부터 시작하여 8일까지 4일간 진행하며 9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- 각 부문별 대상 선정자(작)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주어지고, 그 외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(총상금 4천만 원)이 수여될 계획이다.
- 이 밖에 공모전 취지, 일정,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(<http://competition.hanokdb.kr/>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□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“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참여의 장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한옥의 우수사례와 함께 한 차원 높은 한옥의 발전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참신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붙임 :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포스터 1부.

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상 수상작 현황 1부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임성국 주무관(☎ 044-201-3783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19

<http://competition.hanokdb.kr>

대한민국
한옥공모전



한옥,
도시마을에
새로운 활기를
불어넣다

- 새로운 한옥
도시마을 재생의 거점

사원별: 3월 중-계산-매월
사원별: 3월 중-계산-매월

	1회 일과	2회 일과
중요주요	주요 중	주요 중
중요주요	주요 중	주요 중
사망주요	주요 중	-

²² 사후환상 및 실재의 양립은 동일한 우주 존재이기를 통해 가능함.

[illegible]

도시아름을 되살려 주어야겠다'라 그 도시는 바로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적지않은 도시를 꼽을 수 있다. 도시아름에 대해선 우리 집요한 열망은 새로운 거점의 출현과 더불어 그것들 스스로는 또 새로운 거점의 열망에 이끌려 가려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. 이것은 도시아름을 교외의 별리비단과 근세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펼친다는 일로써 되살리는 작품을 건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. 건축은 우리 도시의 공간구조와 함께 발전해는 건축을통하여

둘째 대한민국 건축문화에서에는 도시아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도시와 연결 시킬수있도록 기존에 재래의 건물 벽면을 잘 활용을 할 새로운 도시아름을 넣어 구한대. 과거 종가 가 마을 전체의 거점이였듯이 도시아름을 재래의 거점이 되고 팔각 도시아름을 종래의 벽과 양면을 제시해 활로를 어떤 모습일까. 가로와 종로, 별지로 구성되는 도시아름을 유지 시키는 길을 잘 활용, 도시아름의 장소성과 경제성을 지속시키는 뒤 있는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.

그런 새로운 원리는 원리에 대한 충실이나 이런 기억을 가진 중생물종만이 아니라 그것이 왕조적이든 한 2~3마리의 젊은 제왕도 배척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이어야 하리라. 그것은 희미 도시에 제약을 받지도 도시정경을 독특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건축일 것이다. 결국 그것은 그 마을을 그 도시답게 만들어 주리라.

□ 준공부문(올해의 한옥대상)

작 품 전 경	작 품 명 및 심 사 평
	「장안사랑채」 · 수원 화성의 한옥 집단 조성지역 내 기존 한옥과 번잡한 중심 가로라는 상반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순화하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건축으로서 한옥이 나아가야 할 덕목을 충분히 살리고 있음. · (위치)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33-1

□ 계획부문(대상)

계 획 안	작 품 명 및 심 사 평
	「적 층 한 . 옥」 · 한옥구조와 재료,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남 · 한옥을 현실적인 상업공간으로 제안하여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· 자칫 단조롭게 처리할 것 같은 저층부에서는 스킵플로어를 이용하여 실내의 높이 감을 부여하였음.

□ 사진부문(대상)

사진	작품명 및 심사평
	『한옥속의 풍경』 · 밝기, 색조, 구도 등 한옥 내부에서 밖으로 향한 뷰와 한옥속의 중첩된 프레임이 차분한 빛으로 잘 표현됨